



안 승 주
충남발전연구원장

권 두 언

해는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된 해인 동시에 열린 충남誌가 창간호를 낸 해였다. 너무도 큰 변화의 물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밀어 닥치고 있어서 정신을 가다듬기조차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세

계화와 지방화라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觀照하면서 우리 충남지역의 발전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공익연구기관으로 우리의 할 일을 고민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위가 어수선하고 변화의 물결이 빠를 수록 좀더 냉정한 마음으로 진정 충남과 인접지역의 조화된 발전을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에 권고할 일,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일들을 찾고자 한다.

창간호에서 우리는 21세를 여는 충남의 발전전략이라는 큰 주제하에 네 편의 특집 논문을 실은 바 있다. 이번 호의 특집도 새로운 세기를 여는 충남의 발전전략중 창간호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들이 논의된다. 우리는 창간호와 이번 2호를 통해 새 세기의 우리 道 발전전략에 관해 각 분야별로 큰 원칙들을 살펴보려 했다. 분야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편의 논문으로 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대 道政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새롭게 우리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큰 흐름을 한번 짚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올해의 1권 1, 2호에서 다룬 일반론을 바탕으로 1996년에 나갈 2권의 1~4호는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4대권 개발을 각호마다 1개 권역씩으로 나누어 그 분야의 논문들을 집중 게재하려 한다. 현재 도에서는 과거와 같은 행정구역별 분류가 아니라 권역별 기능의 특성과 사업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적 사고를 가진 개발을 추진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96년의 각호에서는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으로 불리는 4

대권의 개발경영을 위한 이론적 개념정리와 각 분야별 추진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용수의 확보, 원활한 교통망 구축, 개발재원의 확보,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이 각 권역별로 언급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좀 더 인간다운 따뜻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글들을 주로 게재할 것이다.

저무는 이 한해를 보내며 열린충남을 통해 발표되는 논문들이 충남지역의 장단기 발전에 기여하여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해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열린충남이 研·官·産·學을 잇는 튼튼한 가교가 되도록 여러분

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